곡성토란, 공선출하 기반 확대…유통품질 향상 시킨다

지난해 석곡농협 죽곡지점 공동선별기 1대 도입

9농가 참여 32톤 출하…시세보다 높은 가격 정산

곡성군에서는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통해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곡성토란의 공선출하 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사업을 통해 토란 생산 농가들이 수확 후 잔뿌리 제거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가락시장 등 대형유통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토란 선별이 가능하도록 공선출하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유통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토란 주산지인 석곡농협 죽곡지점에 공동선별기 1대를 도입하였고, 9농가가 참여하여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에 32톤을 출하 하였다.

당시 출하된 토란은 일반상회나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동 정산하였는데,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군에서 토란 공선체계 구축을 위해 장비와 공동선별장 신축을 지원해주어 큰 힘이 되었음을 밝혔다.

올해에는 토란의 본격적 출하 시기인 추석 명절 이전에 공동선별장비를 구축하고 적기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29일에 토란 주산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선출하 기반 확대 설명회 또한 개최하였다.

군 관계자(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는"곡성 토란이 전국 최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곡성토란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주산지 토란생산농가들의 적극적인 공선출하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선출하 시범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화순군, '전남 1호 국내 복귀기업' 유치

에프앤비준과 14억 투자 고용 35명 투자협약 체결

화순군과 전라남도는 6월 29일 의류 제조 기업인 ㈜에프앤비준(대표 서병철)과 투자 14억 원, 고용 35명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에프앤비준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도내 유일의 국내 복귀기업이다.

국내 복귀기업은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 증설하는 기업이다.

에프앤비준은 지난 2006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14년간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며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해왔다.

동면농공단지에 입주, 660여㎡ 규모의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고 2023년까지 총 35명의 인력을 채용해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에프앤비준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 발전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주시,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 앞장

'일·가정 양립'지원

나주시가 가정과 직장 간 균형 잡힌 생활을 도모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시는 최근 농어업회의소 2층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기관 11개소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가족친화인증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리자의 관심 및 의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 경영 직원 만족도', '직원 인터뷰' 등 심사 항목에 대한 서류·현장 평가로 이뤄진다.

이번 컨설팅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 일·가정양립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가족친화경영 마인드 함양을 중점으로 가족친화 신규 및 재인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준수사항과 주요 지표 검토, 가족친화 직장교육 연계 등 제도 인증에 필요한 사전 점검과 보완을 실시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가족친화인증 확산을 위해 전문 기관 컨설팅과 홍보, 현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실현을 통해 일하기 좋은, 일하고 싶은 나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2017년 신규 지정 이후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재지정을 추진, 지난 해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됐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하는 '가정의 날' 도입과 유연근무 시스템, 가족 휴양시설,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가족돌봄휴가, 유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체한 신규 인력채용, 가족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직자 임용 행사를 개최하는 등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나주 지역은 지난 해 신규 인증된 5개소를 포함, 기업·기관 총 25개소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선배공직자 기록물 기증 캠페인'

담양군이 군정역사를 기억·보존하고, 미래세대와의 지속적인 기록 공유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담양군 선배공직자 기록물 기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기록물 기증 캠페인은 '담양의 행정역사가 담긴 서랍 속 옛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전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생산·입수한 행정기록물을 수집해 기록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기획됐다.

기증대상은 전직공직자 및 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업무일지, 수첩, 봉급명세서, 사진, 영상, 구공무원증, 발령장 등으로 담양의 행정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록 자료다.

기증 의사를 지닌 전직공직자는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7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창구를 통해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증된 기록물은 선별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기록관 서고에 보존하고, 향후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정 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공직생활을 하셨던 선배공직자의 활동이 담긴 소중한 기록을 군의 역사를 조명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해 나가고, 기증받은 기록물은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하여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실시

구례군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사업장 내 보관 또는 방치하고 있는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7~8월 초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8월 말에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한다. 단속결과 위반사업장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상습적 위반사업장에는 고발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황룡강에 노랑꽃창포 1만 본 식재

지역민 함께하는 거버넌스

장성군이 민선7기 4년의 새로운 시작을 앞둔 6월 29일, 자치단체와 지역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민관합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군은 군민과 함께 장성 황룡강 일원에 노랑꽃창포를 식재했다.

식재 행사에는 장성 지역 농업인 단체 소속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장소는 서삼장미터널~문화대교 사이로, 군민들은 총 네 구역으로 나누어 1만여 본의 노랑꽃창포를 손수 심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나비 모양의 노란 꽃을 피워내는 노랑꽃창포는 군락을 형성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또 여느 수생식물보다 5배 이상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장성군과 노랑꽃창포의 인연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군은 민선7기 1주년을 기념하며 황룡강에 국내 최대 규모의 노랑꽃창포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초 1.5km 규모로 시작된 꽃창포 단지 조성은 오늘날 5.2km 구간까지 확대됐다. 개화 시기마다 많은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둬 지역민의 호응도 높다.

한편, 장성군이 거버넌스 행사의 일환으로 노랑꽃창포를 식재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앞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황룡강 상류인 '황미르랜드'에서 군민과 함께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했다(2020년은 코로나19로 취소). 매해 지역민과 사회단체, 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표적인 민·관 협동 행사로 자리잡은 바 있다.

기동취재본부